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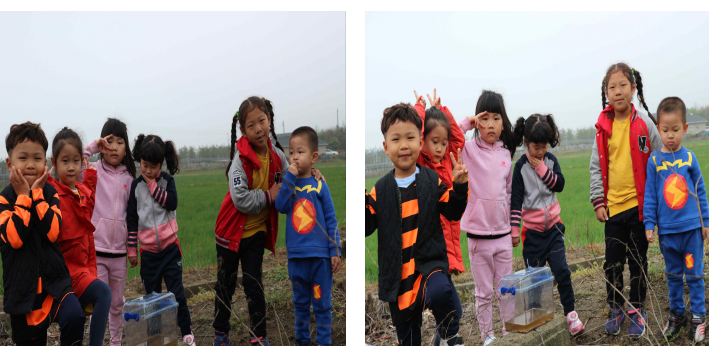
하늘반 이야기 (4월 4주 ~ 5월 1주)



4월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산소리숲속학교였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 하자마자 신이 나서 “엄마도 와요? 아빠도 와요? 할아버지는요?” 하며 묻는 귀염둥이들이랍니다. 매달 숲속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무얼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? 가족과 함께 숲길도 걸어보고, 놀이터에서 놀이도 하고, 맛있는 점심에 게임까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시간으로 남았겠죠~^^ (4월 22일 산소리 숲속학교)



놀이터를 나가거나 모래 놀이를 할 때면 풀을 뽑아서 심고,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심고, 새싹을 따다가 심고 나서 선생님 짝은 언제나오냐며 묻는 아이들~ 뿌리가 나와야 짝이 나오는데 이건 짝이 안날 것 같다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짝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는 고추, 가지, 토마토 모종을 사다가 텃밭과 유치원 앞 화분에 심었습니다. 정성껏 심고 나서 물을 주며 “쑥쑥 잘 자라라.” 하고 말하는데 잘 자라서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겠죠~ (4월 24일 모종심기)



4월 초 유치원에 온 올챙이들이 많이 자랐어요. 알에서 올챙이가 나왔을 때 관심을 보이고 뒷다리가 나왔을 때 신기하다며 관찰을 잘 했습니다. 꼬리가 짧아지며 개구리로 변했다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. 알에서 개구리가 되어 가는 과정을 잘 관찰하고 이번주에는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. 안녕하며 개울물에 보내주며 아쉬워 하면서도 잘 가라며 인사도 해주었습니다. 오후에 다시 개울물에 가 보았는데 개구리가 다 사라졌다며 “어디로 갔지?” 하며 궁금해 했습니다.^^ (4월 30일 개구리아 잘가~)